

## 베트남 공장노동자의 저항에 관한 현지연구 성찰해보기\*

채 수 흥\*\*

### I. 들어가는 말: 현지연구 계획하기

“왜 베트남을 연구하게 되었나?”, “베트남에서 무엇을 연구하나?”, “현지에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는가?”, “현지연구의 결과가 이론과 현실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베트남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요즘도 자주 받는 질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박사 논문을 작성하던 시절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이 질문에 답해본다. 문화인류학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연구를 진행하며 그 결과 무엇을 밝혀내는지 설명하고자 한다.<sup>1)</sup>

연구자의 박사논문의 주제는 외국계(다국적)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가 공장의 안팎에서 벌이는 정치와 이를 통하여 형성되

---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8).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schae@jbnu.ac.kr

1) 본 논문은 박사논문을 회고하는 관계로 연구자가 취한 이론적인 가설이나 현지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내용 등의 일부는 채수흥(2003a) 등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반복은 본 논문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는 정치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베트남 노동자는 외국인 매니저의 자본주의적 훈육과 통제에 어떻게 반응을 하며 어떤 형태의 저항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지 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반응과 저항을 위해서 사회적 관계와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주제를 선택하게 만든 계기, 현지연구과정에서 부딪히게 된 방법론적 문제,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 성과물을 순차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민족지 작성의 전(全)과정을 성찰”(L. Abu-Lughod 1990)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 현지연구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회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화인류학자는 세부전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전공하는 지역을 밝힌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가 전공인데 특히 베트남을 주로 연구한다고 말한다. 남미를 전공하는데 현지연구는 주로 페루에서 했다고 말하거나 유럽 가운데서도 아일랜드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동시에 문화인류학자는 자신의 이론적 관심을 밝힌다. 예를 들어, 인간의 경제활동, 정치과정,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각각 경제인류학, 정치인류학, 종교인류학을 연구한다고 말한다. 때론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에 따라 도시인류학, 농촌인류학, 여성인류학, 산업인류학이 전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론적 관심이 여러 분야가 겹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면 이런 전통적인 분류법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인 주제를 설명하여 자신의 이론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문화인류학자가 되기 위해 현지연구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와 같은 인류학의 전통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주제로 연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연구자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기

시작하기 전부터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이 한국과 유사한 근대사의 굴곡을 겪었으며 동시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역사적 경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이 대학가를 휩쓸던 80년대 학번으로서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미래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연구지역을 빨리 결정한 덕택에 연구자는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지연구를 앞두고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정하고 이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 이론적 관점을 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원래 관심을 가졌던 통일문제는 당시 90년대 말경에는 사회주의 베트남 정부에서 연구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연구주제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학계는 이미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과 결과보다는 실패의 원인과 대안을 찾고 있었다(Verdery 1991). 이는 90년대 초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자연스러운 관심의 전환이었다.

당시 사회주의의 붕괴와 체제전환에 따른 인류학의 이론적 관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이유와 자본주의화 이후 겪고 있는 사회문화적 변동을 탐구하였다(Verdery 1991; Ruble 1995; Hann 외 1996; Humphrey 1998). 또 하나는 체제붕괴는 피했지만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해야만 했던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했다(Fford 외 1996).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편입에 따른 세계경제체제의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반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읽어내고자 했다(K. Jovitt 1992; B. Anderson 1992).

인류학계의 이론적 관심의 변화는 연구자의 현지연구 방향을 자연스럽게 결정지었다. 한편으로,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는 학계의 호

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해외에서 장기 현지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료와 생활비는 물론이고 자료구입비, 연구보조원 급여, 인터뷰 비용 등의 연구비가 필요했다. 학계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를 선택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장기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다행히 학계의 새로운 흐름이 연구자가 오랫동안 가져 온 관심과 일치하였다. 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표출하는지는 경제, 정치, 문화의 관계를 탐구해 온 문화인류학자에게 매력적인 연구주제였다.

이처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이 현지인에게 어떠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하게 하는지를 탐구하겠다는 대략적인 방향을 정함으로써 해외현지연구의 첫 단추를 맞춘 셈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현지연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현지어를 익혀야 했지만 평생 접하지 않았던 외국어를 단기간에 습득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도 기본적인 일상 대화를 어눌하게 구사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현지에 대한 감각이 필요했다. 개혁개방 이후의 베트남을 논한 서적이거나 영상자료가 드물었을 뿐 아니라 이런 매체를 통해 현지를 상상하고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현지에 가보지 않고 현지어를 습득하고 현장 감각을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안락의자에 앉아 현지를 상상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류학도가 본격적인 현지연구를 하기 이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지원단체로부터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에 다녀 올 필요가 있다. 이를 ‘예비현지연

구’(preliminary research)라고 부른다. 예비현지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현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예비현지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현지에서 어떤 양태로 존재하는지를 기능해보게 된다.

## II. 예비현지연구와 연구주제 찾기

연구자가 예비현지연구를 위하여 처음 베트남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96년 여름이다. 당시 베트남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자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베트남이 ‘도이머이’(Doi Moi)라고 통칭되는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지만, 외자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대한 탐색을 마치고 투자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이때부터 외자기업의 유입으로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와 문화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현장에 첫 발을 디딘 예비 인류학자에게 탈피를 거듭하며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베트남은 신기하면서도 아득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이었다. 러닝셔츠 차림으로 뛰놀거나 구걸을 하며 쫓아다니는 아이들은 연구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베트남 전통의상인 하얀 아오자이를 입고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여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광경은 이국적이면서도 연구자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품게 만들었다. 시내를 휘젓고 다니는 인력거인 시클로(xich lo)나 베트남 전쟁시절에 만들어진 국방색 오토바이도 베트남이 물질문화의 도도한 세계화 물결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전통”과 “과거”를 간직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당시 베트남은 아직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개방정책 10년이 만들어 낸 변화도 눈에 띠었다. 호치민의 중심지역인

1군, 3군, 5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호텔이 여기저기 들어서기 시작했다.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카페나 술집과 같은 유흥업도 도시의 곳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사회주의 시절에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공단이 외국 투자 자본에 힘입어 경쟁적으로 건설되고 있었다.

경제발전의 이러한 징후는 아직 낙후함을 떨치지 못한 여러 현상과 기묘하게 대조되면서 하노이와 호치민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보여주고 있었다. 호화롭게 단장한 특급호텔이 모습을 드러낸 도시에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밤이 되면 깜깜해지는가 하면 나날이 늘어나는 공단으로 가는 길은 한차례 비에도 차바퀴가 물에 잠기는 낙후한 하수시설과 대조를 이루었다.

예비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는 모자이크 같은 일상의 문화도 흥미로웠지만 연구자의 눈길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베트남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순이었다(Chae 2004). 특히 베트남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의 상부구조인 정치와 하부구조(또는 구조)인 경제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기묘하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은 여러 궁금증을 자아냈다.

베트남은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통하여 정치와 통치이념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 반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실용적 정책 때문에 경제는 사회주의 방식이 아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가까워 보였다.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외국자본을 유혹하기 위하여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를 용이하게 만드는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사회주의라는 과거의 이념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발전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현실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현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예비현지연구 기간 내내 뇌리에 남았다.

불과 2개월의 짧은 예비현지연구였지만 연구자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길거리나 숙소 등에서 만난 베트남인과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노이와 호치민 인근의 산업공단을 탐방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했다. 연구자의 베트남어 수준이 아직 초보에 불과해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예비현지연구기간 동안 현지인이 중요하고 진솔한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만큼 서로 간의 라뵈(rapport)가 형성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과의 짧고 피상적인 만남은 중요한 몇 가지 실마리를 제공했다.

우선 다수의 베트남인은 사회주의 이념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보다는 개방정책이 자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사회주의화를 위한 ‘강성개혁’(hard reform)이 추진되던 시절보다는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Fford 외 1996). 이들은 연구자에게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설명하고 연구자가 학적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조국인 한국의 발전상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다. 개혁개방정책이 자신에게도 밝은 미래를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연구자가 만난 베트남인은 또한 공통적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부탁했다. 시장경제가 도입된 초기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귀했을 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산업화 초기라 아직은 공장에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주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인이 한국인인 연구자에

게 일자리 소개를 부탁하면서 꼭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 공장에서의 일이 힘들고 한국인이 무섭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 연구자를 당황시켰다. 연구자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어떤 현실에 기인한 것인지 어떻게 베트남 사회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 대답의 하나는 아래에 인용한 미디어의 보도였다.

<백장미 사건>

1996년 3월 27일 상급자로부터 신발 원자재가 낭비되고 있다는 꾸중을 받은 한국인 현장 기술자 미스 백은[이름이 백장미] 열다섯 명의 베트남 여성노동자와 두 명의 한국인 기술자를 한 줄로 세워 놓고 훈계하며 신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 사건은 [호치민 외곽의] 구찌(Cu Chi)에 위치한 [나이키 하청업체인] 삼양 베트남에서 일어났다. ... 이후 이 사건은 백장미(white rose) 사건으로 통칭되며 지역에 반향을 일으켰다. (Sigon Times Daily, 1996년 8월 1일).<sup>2)</sup>

이 사건은 베트남 사회에서 전형적인 한국인 매니저의 노동통제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었다. 연구자가 사건이 일어난 회사의 한국인 매니저를 찾아가 만났을 때 불만의 요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러한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베트남 노동자가 제공한다고 항변했다. 베트남 노동자가 제품을 네 개 만들 수 있는 원자재를 잘못 다루어 세 개 밖에 못 만들도록 재단할 뿐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한 원자재 폐품을 보관하도록 하면 처벌이 무서워 버린다는 것이다. 여러 번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기업이 외자기업으로서 현지의 법규에 적응하기

2) [ ]는 연구자의 보충설명



위해 약한 처벌을 해도 언론이 침소봉대하여 보도한다는 점이였다. 한국의 산업화 초기를 경험한 한국인 매니저의 생각에 따르면 노동자를 일렬로 세워놓고 혼시를 하면서 신발로 머리를 때리는 정도는 폭력의 범주에도 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베트남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기업과 한국인 매니저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과장된 이미지가 유포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연구자는 한국인 매니저의 이러한 항변이 다분히 자기중심적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베트남 노동자의 대다수는 다른 산업(주로 농업)에 종사하다가 산업노동에 편입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에 분명했다. 베트남 노동자는 자본주의 공장의 통제와 훈육 방식에 힘겹게 적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 매니저는 효율적인 생산체계가 신속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현실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베트남 언론이 노동문제가 발생할 때 노동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이념적, 민족적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인 매니저의 이해가 부족한 듯 했다.

연구자는 한국인 매니저의 항변을 들으면서 오히려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공장의 자본주의 훈육과 통제에 대하여 어떤 반응과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베트남 노동자가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구체적 방식과 이유가 알고 싶어 졌다. 연구자는 이러한 궁금증이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베트남인의 대응과 해석에 대하여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 III. 이론적 가설과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자는 여러 의문과 궁금증을 안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연구자에게 짧은 예비현지연구는 연구지역에 대한 감각을 갖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감과 연구의욕을 북돋았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학술연구비’(fund)를 제공하는 미국의 주요 재단에 제출할 ‘연구계획서’(proposal)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연구계획서의 시작은 현지연구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예비현지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베트남 노동자의 외국 자본에 대한 순응과 저항의 이유를 찾는 것으로 정했다. 베트남 노동자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때론 외국 자본에 순응하고 때론 저항하는지를 탐색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주제를 정한 연구자는 노동자의 저항 요인을 설명한 이론적 가설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산업노동자의 저항에 대한 이론을 가설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산업노동자에 관한 연구가 방대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각종 논쟁을 저항이라는 범주와 연계시켜 분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

연구자가 이때 떠올린 것은 농민운동에 관한 논쟁이었다. 농민저항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론적 다툼을 벌였던 사회사적 연구들이 개혁개방정책으로 변화하는 노동자의 삶과 정치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가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연구들을 원용하면 연구자의 주제에 적합한 이론적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다.

이 논쟁은 이론적 입장에 따라 크게 셋 또는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페이지(Paige 1975)와 팝킨(Popkin 1979)은 경제적 요인을 강조했다. 비록 둘 모두 농민반란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에서 찾

고자 하지만 양자의 해석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페이지는 농민이 평소에는 개인주의적 성향(ethos) 때문에 저항을 위해 단합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경제조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집단적으로 저항한다. 이런 가설을 응용해보면 베트남 노동자의 경우에도 평소에 개인의 이해에 집착하다가 경제상황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집단저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반면 팡킨에 따르면 농민 역시 합리적 계산에 따라 정치행위를 하는 집단이다. 농민은 합리적 계산에 따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순응하거나 저항을 한다. 이러한 가설을 적용해보면 베트남 노동자의 저항도 이들의 합리적 계산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페이지와 팡킨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노동자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순응과 저항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경제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만 집단저항의 합리적 선택을 감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위의 두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스콧(Scott 1976, 1985)은 농민 고유의 도덕적, 문화적 판단기준에 주목한다. 스콧에 따르면 농민은 진심으로 지주의 지배에 동의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여러 형태의 저항을 보여준다. 하지만 농민의 이러한 저항은 지배 엘리트들 무너뜨릴 만큼 혁명적이지도 않다(Scott 1976: 192). 이는 농민이 생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받으려 하고 나름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생계의 위협을 받았을 때만 집단저항을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상적 저항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런 가설을 적용해보면 베트남 노동자 역시 평소에 외국자본의 통제와 보상에 대하여 일상적 저항을 하다가 자신이 가진 도덕적 기준을 넘어섰다고 느낄 정도로 생계안전의 위협을 느낄 경우에만 결속력을 보이며 노동쟁의를 일으킬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학자 울프(Wolf 1969)는 농민 내부의 정치경제적 분화를 강조하면서도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농민전쟁을 이끌었던 주요세력은 가난한 농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유하여 ‘전략적 자유’(tactical freedom)를 가진 중농 세력이었음을 강조한다. 울프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농민이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화적 제약을 받으며 만들어가는 정치과정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울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베트남 노동자의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것은 사회적 관계, 문화적 제약,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과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론적 가설을 점검해보기 위해서는 베트남 산업공단의 60% 이상이 몰려 있는 남부 특히 호치민 인근을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이 시기부터 북부, 중부, 그리고 남부의 메콩 델타 지역에서 호치민 인근의 산업공단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고 있는 사실은 매력적이었다. 저항의 정치학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주민과 원주민은 어떻게 다른 생활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공장의 훈육에 대하여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했다.

연구의 주제, 이론적 가설, 연구대상을 확정하자 연구계획서가 완성되었다. 연구계획서의 최종 목표는 개혁개방정책을 계기로 외자기업에서 일하는 호치민 인근 베트남 노동자의 저항을 민족지(ethnography)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학술연구비를 제공하는 여러 재단에 지원서를 냈다.

당시 미국 시민권이 없는 박사과정 학생에게 연구비를 제공하는 재단은 극소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운이 좋았다. 연구자의 주제가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재단에서 연구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두 재단은 연구자의 연구비를 양측 모두 전액 지불하는 대신 연구기간을 1년에서 1년 반으로 연장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실제로 1년 동안 연구주제를 소화하는 것이 빠듯하다고 느낀 연구자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박사과정학생으로는 과분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로써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장기현지연구를 떠날 준비가 완료되었다.

#### IV. 주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정하기

현지 연구에서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만큼 어려운 것이 ‘연구방법’(research method)과 현장에의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이다. 연구방법론을 정하는 것은 연구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시각을 기존의 주요이론에서 찾아내는 지난한 작업이다. 하지만 노력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을 뜰 수 있는’(開眼) 것이 방법론 찾기이다.

반면 현장에 접근해서 현지 관련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노력만이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한다. 신뢰를 형성하고 연구의 의미를 설득하는데 성공하더라도 현지사정과 현지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과 같은 거주공동체, 단체, 비공식 집단에 접근하는 것과 비교할 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접근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경제 사정이나 정치 갈등 등 내부 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갈 위험을 경계할 뿐 아니라 연구자가 업무에 방해가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면접은 허락하지만 장기연구는 여러 핑계를 대어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연구대상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곳을 집중적으로 관

찰해야 연구내용을 채울 수 있을지 연구방법을 찾는 일도 막막하기 십상이다.

연구자는 1998년 여름 베트남으로 건너 가 몇 개월 동안 주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먼저 베트남어를 다시 배웠다. 미국에서 배운 베트남어가 현지에서 특히 방언이 심한 남부에서 통하지 않는 것은 큰 스트레스였다. 남성에게 쓰는 간단한 대명사인 ‘아잉’(anh)마저 남부에서는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안’(an)이라고 발음이 되어 연구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현실에서 현지연구가 가능할 만큼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것은 요원해 보였다.

다음으로 현지연구가 가능한 공장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연구자는 외국인 공장 매니저만이 아니라 베트남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참여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단기 공장 방문이 아니라 장기거주를 허락받아야 했다. 하지만 외국계 공장 매니저를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듣고 선뜻 우리 공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라고 허락하는 곳은 당연히 없었다. 특히 한국계 기업이 아닌 일본계나 대만계 기업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위 연결(connection)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연구자에게는 운이 따랐다. 현지연구 초기에 동거하였던 연구자의 대학 후배가 은행원이었다. 은행이야말로 현지기업과 대출과 송금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지 공장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점이었다. 연구자는 이 은행의 한국인 직원들의 도움으로 공장주들을 자주 접촉할 수 있었다. 은행이 회사의 자금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나갈 때 동행하여 노동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질 기회도 자주 가졌다. 이렇게 방문한 호치민 인근의 한국계 공장이 수십 개 되었다.

현지연구초기에 공장을 방문하면서 주로 던진 질문은 회사의 경

제적 사정과 노사갈등의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회사의 사정이 좋으면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노동통제가 쉽고 반대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의 경제사정과 노동문제 발생빈도의 상관관계는 없어 보였다. 이익이 많이 나고 임금이 높음에도 노동문제에 시달리고 경제사정은 영세하지만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노동문제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인 요인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은 새로운 도전정신을 요구했다. 베트남 노동자는 경제적인 것 이외에 어떤 이유로 외국계 공장에서 저항을 시도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답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여러 공장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실마리를 찾을 ‘주요한 질문들’(key questions)을 점차 갖게 된 것이다. 특히 공장 매니저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국계 공장의 매니저들은 처음에는 연구자에게 베트남에서 노동자를 다루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곤 했다. 공장 운영초기에 베트남 노동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몰라서” 마찰을 일으키고 파업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면접이 막바지에 이르면 자신이 베트남 노동자를 다루는 “노우-하우”(know-how)를 터득했으며 지금은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다. 연구자는 이런 진술 속에 해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 숨어있다고 믿었다. 과연 한국계 공장이 초기에 공통적으로 경험한 어려움의 성격은 무엇일까? 한국인 매니저들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베트남 노동자를 다루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마치 마을공동체를 연구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현지연구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인류학자가 전통적으로 특정 공동체에 1년 이상 살면서 경제, 정치, 사회적 관계, 문화 등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듯이 공장을

연구단위로 삼아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회사, 외국인 매니저, 현지 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조건, 정치과정, 사회적 관계, 문화를 총체적으로 탐색하면서 왜 때론 공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때론 평화가 유지되는지를 분석해보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공장의 속살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구를 허락할 회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 더욱이 연구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갈등과 화합을 모두 경험한 연구대상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주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연구대상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에게 장기체류와 연구조사를 허락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했다. 실제로 연구자가 마음에 드는 공장을 찾아가 설득을 하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연구자의 끈기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산삼을 찾는 심마니의 심정으로 몇 달 동안 공장을 물색하던 어느 날 연구자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연구대상 공장으로부터 연구를 허락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연구자의 처지를 이해하던 사장이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것이다. 허락을 받자마자 연구자는 바로 짐을 싸서 공장 인근의 여관으로 이사를 하고 현지연구에 착수했다.

## V. 연구대상 공장과 연구 여건 만들기

연구자가 연구대상 공장인 SIL(가명)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유는 이 회사가 연구 목적에 맞아 떨어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공장이 연구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예를 들어, 단독투자 회사와 합작



회사(joint Venture) 가운데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공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도출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밖에도 투자된 자본의 규모, 생산품의 종류, 투자기간, 공장의 위치, 지역 정부와의 관계, 노조의 성격, 경영진의 철학 등등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 이와 같이 복잡한 변수를 고려하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전형적(typical)인 회사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SIL이 연구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 회사는 섬유를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베트남 남부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절대다수가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다. 특히 섬유, 봉제, 신발, 인형을 만드는 업체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업체의 노동자 수는 몇 십 명에서 몇 만 명까지 다양했지만 대략 5백에서 1천 명 정도의 베트남 노동자를 한국인 매니저 몇 명이 관리하는 공장이 가장 많았다. SIL은 한국인 매니저 7명이 600-800여 명의 베트남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가장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다국적 공장이었다. 연구자는 SIL의 업종과 노동력 규모가 일반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년 동안 심층적으로 연구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SIL이 섬유업체로서는 남부에서 가장 큰 베트남 국영기업과 한국에서 잘 알려진 섬유업체의 합자기업이라는 점도 연구자의 시선을 끌었다. 서로 다른 ‘공장체제’(factory regime)(M. Burawoy 1979, 1985)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두 기업이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주의적 기업 조직과 문화가 자본주의적 기업의 조직과 문화와 어떻게 융합하고 갈등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특히 양 기업이 처음 합자회사를 만들면서 현장과 사무실의 주요 간부는 한국의 모기업에서 오고 일반 노동자와 사무실 직원들은 베트남 국영기업에서 전근을 왔다는 사실이 흥미로웠

다. 서로 다른 민족 정체성과 노동경험을 가진 이 두 집단이 노동현장에서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갈등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연구자가 SIL을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흥미로운 역사 때문이었다. 이 회사는 1992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한국 경영진과 베트남 노동자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한국의 거친 자본주의 훈육문화에 익숙한 한국인 경영진과 현장 매니저가 사회주의적 노동문화에서 길들여진 노동자와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마찰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이런 과정에서 1993년 말에는 당시 베트남의 정치체제 아래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파업까지 경험했다(채수홍a 2003: 150).

하지만 연구자가 1998년 가을에 현지연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이 회사는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지역의 노조 지도자들이 한국인인 연구자가 일부러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여 편향된 연구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정도였다. 연구자는 다국적 기업인 SIL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가 연구자가 던지고 있는 질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한국기업이 초기에는 왜 어려움을 겪으며, 경험이 쌓인 이후 안정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은 무엇인지라는 이 연구의 주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연구목적에 맞는 회사를 연구하게 되었다는 만족감을 느낀 것은 잠시 뿐이었다. 막상 공장에서의 연구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노동과정 때문에 노동자와 접촉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힘들어보였다. 이 때문에 연구초기에는 베트남 노동자와 함께 어울리며 이들의 느낌을 간접 경험해보겠다는 생각에 일을 배워보겠다고 호기를 부려보았다. 하지만 실을 뽑아내고 이를 짜집기하여 천으로 만드는 공장 안은 온통 기계가 뽑어내는 소음

으로 가득 찬 한증막 같았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와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손기술은 없고 머릿속에 먹물만 가득한 서생(書生)인 연구자가 공장에서 할 일도 마땅치 않았다. 숨이나 부품을 나르는 짐꾼과 심부름꾼의 역할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고 기술을 배우고자 하면 일에 방해가 되어 현장의 매니저와 노동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일을 배우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사장에게 부탁하여 공장 안에 연구공간을 확보했다. 천을 찌는 공장 안에 있는 자재창고에 책상을 놓고 이곳에서 현장 매니저와 노동자를 면담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이런 혜택이 가능했던 것은 연구자가 연구초기부터 한국인 경영진 그리고 현장 매니저와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 7명의 한국인 매니저와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저녁에 술자리가 있으면 꼭 참석했다. 주말이면 볼링을 치러 함께 다녔고 개별적으로 신상과 관련한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친밀감을 쌓아갔다. 이런 노력 덕분에 단기간에 공장 안의 창고를 한국인 직원이 들락거리는 사랑방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한국인 매니저와의 라뽀를 형성하는데 성공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갖게 되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베트남 ‘연구보조원’(research assistant)을 고용하여 베트남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면담하기 시작했다. 먼저 공장의 사정을 잘 아는 고참 노동자와 노동조합 간부부터 만났다. 그러나 이들은 친밀하지도 않고 정체도 불분명한 연구자와의 만남을 그리 달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초기 면담은 주로 일과시간에 한국인 매니저의 사전 허가를 얻어 이루어졌는데 연구자는 면담대상자들이 형식적인 대답으로 일관하는 것에 크게 당황했다. 예를 들어, 노동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면 “얘기 할만한 고충은 없다”는 식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대답을 들어야 했

다. 한국인 매니저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어 하면 “좋은 사람”이라거나 “업무를 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잘라 말하곤 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노동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다시 말해, 공장 노동자의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연구자의 고민이 깊어졌다.

한 달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다행히 연구자는 통역을 해주던 연구보조원의 도움으로 이러한 난관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냈다. 연구보조원은 노동자들이 연구자가 한국인 매니저와 동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노동자들은 같은 베트남인인 연구보조원에게 “왜 한국인인 저 사람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보조원이 순수한 연구일 뿐이라고 설명해도 노동자들은 “내가 말한 내용이 한국인 매니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던 것이다.

물론 연구자는 ‘면접자와 면접대상자의 관계가 면접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크레인, 앙드로시노 2003: 9-13)에 대하여 이미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연구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대답하기 꺼려하는 사안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면접자-면접대상자의 관계 문제가 실제 현지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체득하진 못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연구자는 다른 일을 제쳐 두고 노동자와 라뽀를 형성하는데 힘을 쏟았다. 공장에서 마주치는 노동자의 이름을 외우고 개인사를 챙기기 시작했다. 기회가 되면 점심도 베트남 노동자의 “칸틴”(can tin, 구내식당)에서 함께 했다. 한국인이 칸틴에 나타나면 수

군거리기도 했지만 점차 반갑게 인사하거나 농담을 건네는 노동자가 많아졌다. 이런 노력의 결과 여성 노동자들은 일과가 끝나고 가끔 카페나 노래방에 모일 때 연구자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남성노동자들은 연구자와 함께 당구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재미있어 하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초대하려고 했다.

사실 현지어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연구자가 현지인과 어울리는 일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놀림을 받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접하는 것이 피곤할 때도 많다. 하지만 외국인 연구자가 이런 과정에 적응하지 않으면 현지인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런 경우 연구자는 피상적이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결과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연구자와 친밀해지면서 연구자와 조금씩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일부 노동자는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남편과 왜 싸웠는지, 부인 몰래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등 사생활을 털어 놓으며 연구자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평판이나 소문을 전달해 주기도 했다. 이들이 연구자와 공유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은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여러 정보와 시각을 전달해 주었을 뿐 아니라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매니저가 공장에서 부품을 집어 던진 사건, 노동조합의 결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 한국 경영진의 특정 지시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동자를 면담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들의 해석을 듣는 것이 가능했다.

현지 노동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못지않게 어렵고도 중

요한 것은 신뢰를 잃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한국인 경영진 및 매니저와 베트남 노동자의 관계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양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양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는 연구자 스스로 걸러내고 도움이 되는 일만 조심스럽게 중재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회사 내 위계 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인 매니저에게 부탁하거나 건의할 일이 있어 연구자의 입을 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청탁한 내용이 다른 노동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로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자는 한국인 경영진과 베트남 노동자 양자 모두에게 연구자가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했다. 양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정치를 해야만 신뢰를 잃지 않고 진솔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국적 공장에서의 연구는 이처럼 연구자의 상당한 정치적 역량을 요구하는 미묘한 작업이었다.

연구자는 ‘정보제공자’(informant)와의 라뽀 형성에 자신감을 얻자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초기 한두 달 동안 연구자가 경험한 시행착오는 시간의 낭비가 아니었다. 이 기간 동안 연구내용의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단계별 연구전략을 세워야 하며 동시에 단계마다 적절한 연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줄리아 크레인 외 2003). 연구자는 이에 따라 지역과 공장의 역사를 먼저 추적하고, 이후 공장에서 일어나는 노동과정을 관찰한 다음, 마지막으로 공장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를 탐색해 보겠다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현지연구가 시작된

셈이었다.

## VI. 지역의 역사 추적하기

연구자가 여러 연구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탐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연구대상 공장 SIL이 위치한 지역의 ‘정치경제학적’(political economic) 특성이었다. SIL은 호치민의 외곽 구(district)로 행정구역 상으로는 2군이지만 오래 전부터 투득(Thu Duc)이라고 통칭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SIL 노동자의 삶의 좌표를 결정지어온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득의 지리적, 생태적, 인구학적인 구성도 살펴 보아야 했지만 무엇보다 당시 투득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만들어 온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적어도 전쟁시기부터 연구당시까지 투득 주민이 생계활동에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독특한 정치의식과 세계관을 만들어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의 결과 투득의 주민은 당시 이루어지고 있던 급속한 산업화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연구자는 투득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문헌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투득의 역사를 따로 정리한 논문이나 책자는 없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뒤진 보도 자료나 구청과 면사무소의 문헌 자료에도 투득의 최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었다. 이처럼 난관에 부딪힌 연구자는 고심 끝에 두 가지 우회 전략을 결합하여 투득의 역사를 재구성해 보기로 결정했다. 먼저 남부의 정치경제학적 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분석한 서구 학계의 책자(예를 들어, Duiker 1995; Fford 외 1996; Marr 외 1988)를 구입하여 대략적인 감을 잡기로 했다. 그런 다음 이런 책자들에

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삼아 투득에 살고 있는 원로세대를 만나보기로 했다. 이들에게 베트남 남부가 역사적 시기마다 겪은 정치경제학적 변화를 투득 주민들은 어떻게 경험했는지 물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투득의 각 마을에 살고 있는 원로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연구자의 연구보조원의 집이 투득 인근인 안푸(an phu)였다. 그의 도움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제공자를 몇 명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굴 만나보면 잘 알거야”라는 식으로 다른 이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정보가 축적되어 갔으며 이 지역의 생계양식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지역의 역사에 관한 기억을 추적하는 일은 흥미로웠다. 낮에는 소개받은 정보제공자를 만나 역사적 단계마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과 지역민의 삶의 경험을 들었으며 밤에는 자전거를 타고 여러 마을을 돌며 낮에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제공자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는 것은 연구자에게는 지역의 역사를 구성(construct)하는 기쁨을 주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윤택림 2004; 윤택림 외 2006). 또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인류학적 격언대로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인 것이다.

예를 들어, 논밭을 지나면 전쟁이전부터 저지대에 살았던 지역 농민의 삶과 운명을 상상했다. 고지대의 공장을 둘러보면 중국계 베트남인인 화(華)의 삶을 떠올렸다. 이들은 전쟁기간에 투득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회주의화를 모토로 한 ‘강성개혁’(hard reform, 1975-1984) 당시 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 1979년 캄보디아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베트남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역을 떠났다. 하지



만 ‘연성개혁’(soft reform)에 이어 도이머이로 통칭되는 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다시 베트남에 자본을 투자하는 귀한 몸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재래시장을 방문하면 강성개혁 동안에 암시장이 몰래 썼던 곳이 이렇게 변했나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새로 단장한 부유층의 저택과 허름한 빈민층의 판잣집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면 개혁개방 정책이 만들어낸 빈부격차를 생각하며 상념에 빠지게 되었다.

지역민의 역사적 기억을 추적하는 작업은 이처럼 연구자에게 현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에 눈을 뜨게 만들어주었다. 덕분에 연구자는 SIL의 노동자가 강성개혁기와 연성개혁기에 삶터와 일터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결과 개혁개방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 지역 공장노동자들이 강성개혁시기의 빈곤한 경제적 삶에 대한 경험 때문에 외국자본에 의한 산업화와 시장 활성화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개혁개방 이전에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적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깨닫는 과정에서 연구내용이 명쾌하게 다듬어지고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주민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빠른 사회경제적 분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차후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다. 연구대상 노동자의 행동을 이들의 경험과 연계시켜 다루고자 할 때 원주민인지 이주민 인지를 기늠하고 세대를 구분해야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경험차이 즉 젠더(gender)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었다.

## VII. 공장의 역사 재구성하기

지역의 역사를 추적하는 작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연구자는 공장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SIL은 1992년 여름에 설립된 뒤 약 8개월의 공장건설과 기계 설치를 끝내고 1993년 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연구자가 이 공장에서 현지연구를 시작한 것이 1998년 말이었으므로 약 5-6년의 역사를 재구성하면 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회사설립 초기부터 일을 했던 한국인 매니저와 베트남인 고참 노동자를 만나 설립초기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진술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흥미를 끈 것은 연구자가 “과거 공장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 양측 모두 설립초기인 1993년 말에 일어난 파업과 이후 약 2년간의 수습과정에 관해서만 설명한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1996년 초부터 약 3년간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왜 그럴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이 회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한 파업이 당사자들에게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 파업이 (비록 단 이틀 만에 끝났지만) ‘청년’(Thanh Nien)이나 ‘부녀’(Phu Nhu) 등 현지 언론은 물론이고 BBC 태국 지국에서도 취재를 했을 만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채수홍a 2003: 153).

하지만 한국인 매니저와 베트남인 노동자 모두 파업이후의 2년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과거로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는 면접을 진행하면서 그 이유가 파업을 기점으로 2년 동안 공장에 많은 사건과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후에는 현지연구 당시와 비슷한 공장체제와 노사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파업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고, 파업이후 2년

동안 어떤 일이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공장의 정치체제와 노사관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파악해야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연구자는 마지막 연구내용은 장차 참여 관찰과 면접을 실시하면서 내용을 완성해갈 수 있는 반면 앞의 두 가지 연구내용은 공장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연구자는 먼저 SIL에서 파업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매니저와 베트남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파업은 구정 보너스인 ‘13월의 월급’(thang luong muoi ba)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채수홍a 2003: 152). 파업 당시 사회주의 국영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다 전근 온 베트남 노동자는 관례에 따라 이윤을 재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인 경영진은 자본주의 공장에서는 이윤 재분배가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이 요구를 거절했다. 그 결과 구정이 가까워옴에 따라 가족을 위하여 목돈이 필요했던 베트남 노동자는 경영진이 자신의 “사회적 유대와 문화적으로 유의미한 것에 대하여 도전”(채수홍a 2003: 152)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이 파업은 당해에만 “13월의 월급”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타협점을 찾았고 양측이 자신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함에 중지부를 찍게 된다. 이와 같이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관된 진술과 해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보다 심층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인 매니저와 베트남 노동자의 해석이 달랐다. 베트남 노동자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파업 이전에 자신들이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었다. 이들이 파업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한 것도 이로 인해 축적된 불만이었다. 구정 보너스의 지급 여부는 그 동안 쌓인 문제에 불을 붙여준 것뿐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인 매니저는 공장가동 초기에 베트남 노동자의 숙련도가 낮고 일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해 훈육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파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한국인 매니저는 자본주의 공장의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제와 훈육을 당연시 한 반면 사회주의 공장에서 전근 온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고통스러운 적응과정이었다.

SIL 역사의 초기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불만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주의 공장에서 어떻게 생활했으며 SIL로 전근을 온 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노동자의 진술을 토대로 SIL의 역사 뿐 아니라 사회주의 모기업 시절의 역사까지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사회주의 공장으로부터 전근 온 노동자가 겪었던 어려움을 몇 가지로 축약해 낼 수 있었다.

우선, 사회주의 공장에서 전근 온 노동자가 자본주의 공장의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힘들어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주의 공장에서는 원자재와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소위 ‘결핍경제’(shortage economy)(Burawoy and Lukacs 1992: 18)로 인하여 때때로 휴식이 가능했다. 반면 SIL에서는 기계보수와 부품공급이 잘 이루어져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 매니저의 생산과정과 생산물에 대한 점검이 엄격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늘어난 노동시간과 높아진 노동 강도에 대한 불만을 축적시켜 갔다(채수홍a 2003: 156).

설상가상으로 이들 노동자는 자본주의 공장의 노동과정에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율권이 줄어들어 일을 강제당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사회주의 공장에서는 ‘몰아치기 생산’(storming production)(Jovitt 1992)이 많아 현장 매니저가 노동자와 일에 대해

상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야 한꺼번에 일이 몰릴 때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SIL의 현장 매니저는 목표량을 지시하거나 불량품 등의 문제를 지적할 때만 노동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마저도 언어의 차이 때문에 오해를 자주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생산의 ‘관료적 유형’(bureaucratic pattern)(Gouldner 1954; Burawoy 1985)이 동의가 아닌 강압에 가깝다고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끼곤 했다(채수홍a 2003: 157).

마지막으로, SIL에서는 이런 좌절을 중재하고 호소할 장치가 없었다. 사회주의 공장에서는 공산당, 노동조합, 경영진, 그리고 청년동맹 또는 여성동맹 등의 단체 등이 ‘보뚜’(bo tu)라고 불리는 사위일체의 원칙을 가지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가 있었다. 노동자가 고충을 노동조합이나 단체에 호소하면 당과 경영진이 이를 수용할 여지가 있었다. 게다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벌을 내리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노동자를 강압적으로 다루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반면 SIL에서는 현장 매니저가 강압적인 행동을 해도 불만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처럼 연구자는 SIL 노동자의 사회주의 공장에서의 생활을 재구성하고 이를 SIL에서의 경험과 비교해 봄으로써 파업으로 상징되는 초기의 갈등이 단순히 낮은 임금과 보너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SIL이 초기에 경험했던 공장체제의 불안정이 노동자의 사회주의 공장에서의 경험과 자본주의 공장에서의 경험의 차이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 연구를 토대로 SIL 공장체제가 과거에 불안정했던 원인을 파악한 연구자는 대조적인 두 번째 질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시 말해, “왜 지금은 공장체제가 안정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과정, 사회적 관계, 문화 등을 공장 안

밖에서 관찰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이 각각 공장체제의 안정을 위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내야만 했다.

### VIII. 노동과정에서 안정된 공장체제의 비결 캐기

연구자가 안정된 공장체제의 비결을 찾아내기 위하여 가장 심혈을 기울여 현지연구를 한 부분이 노동과정이다. 연구자가 학부시절부터 노동자의 정치적 의식과 실천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연구자는 노동(자)-자본(가) 간의 정치를 다룬 대부분의 대중적, 학술적 이론이 항상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경제-환원론이나 규범과 관습의 차이를 과장하여 설명하는 문화결정론에 빠져 있는 점에 불만을 가져왔다(채수홍 2003b).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노동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노동자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생각해왔다. 연구자는 노동자가 자본의 통제에 동의하거나 반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노동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Burawoy 1979, 1985).

SIL은 크게 세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실을 만드는 방적(spinning), 천을 짜는 직조(weaving), 그리고 물을 쏘는 기계장치로 실을 짜는 워터-제트(water-jet) 공장이었다. 연구자는 이 세 공장의 공정을 세밀하게 기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각 공정의 특징을 일일이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약 한 달의 시간이 소비되었다. 하지만 공정과정에 대한 기록이 끝나자 “내가 왜 이 짓을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밀려왔다. 공정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

는지를 기술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서 필요하겠지만 그 자체로 노동자의 동의와 저항을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공정을 기록하는 것이 곧 노동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몰랐던 것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잠시 현지연구를 멈추고 노동과정을 연구하는 방법과 방법론에 대한 성찰을 해야만 했다. 이 시간 동안 연구자는 인류학자의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실을 짜기 위하여 어떤 손동작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다는 실을 반복적으로 짜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자끼리 그리고 노동자와 관리자가 함께 일하면서 자신과 서로에 대하여 갖게 되는 느낌, 생각, 의식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이처럼 노동과정의 연구는 공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관계 맺기와 상호작용의 양상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때부터 연구자는 노동과정을 매개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위계(hierarchy)와 노동과정에서 강제, 동의, 저항을 만들어내는 통제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위계와 통제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취재하고 이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해야 했다. 노동자가 일과시간에 왜 다툼을 벌였는지, 조반장이 왜 질책을 했는지, 각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끊임없이 보고, 묻고, 분석해야 했다.

연구자가 이처럼 현장에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추수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베트남 노동자와 한국인 매니저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차츰 연구자의 호기심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하더니 일부는 연구자가 모르는 사건

을 일부러 찾아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자신의 견해를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해 하기도 했다. 덕분에 시간이 지나자 연구자가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장 폭 넓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한국인 매니저나 베트남 노동자가 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연구자는 노동과정을 참여관찰하면서 눈에 띄는 특징을 정리해가기 시작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한국인 매니저가 주로 일반 노동자가 아닌 조·반장을 상대하는 것이었다. 한국인 매니저는 공장을 순시하다가 간단한 문제를 발견하면 일반 노동자에게 원인을 물어본 뒤 직접 지시를 내리지만 심각할 경우 조, 반장을 사무실로 불러 질책하곤 하였다. 한국인 매니저는 평소 짧은 베트남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반노동자와 농담을 주고받는 등 친밀함을 과시하지만 일과 관련해서는, 특히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들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처음 이런 현상을 접했을 때 연구자는 한국인 매니저가 일반노동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만큼 베트남어를 잘하지 못해 경력이 많은 조·반장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추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만큼 베트남어를 잘하는 한국인 매니저도 유사한 행동유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인 매니저가 지위가 높은 조·반장만 상대하고 일반노동자를 무시하여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평소에는 일반노동자에게 정답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반복적인 참여관찰을 통하여 한국인 매니저의 이런 행동이 노동과정을 통제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조·반장을 통하여 일반노동자의 일을 간접 통제하는 방식은 한국인 매니저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



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베트남 노동자를 직접 상대할 경우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해가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적대적 감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일반노동자 대신 조반장을 상대하면 통제도 생산적일 뿐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에게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인 매니저가 현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조반장을 일종의 ‘중재자’(middlemen)(Bailey 1969: 167)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조반장과 평소에 사적으로 절친하게 지내어 공적으로 화를 내어도 지나친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 수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인 매니저는 수하에 있는 남성 조반장만 따로 불러 술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앙 짜이”(anh trai, 형)나 “엠 짜이”(em trai, 동생)라고 부르며 형제애를 과시했다. 여성 조반장의 경우에는 가정사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등 더 신경을 많이 썼다.

또한 한국인 매니저는 조반장이 생산에 큰 지장이 없는 작은 일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조반장이 중요한 일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공장 안에 있는 사무실 문을 닫고 소리를 지르며 분통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지만 사소한 사건은 베트남인끼리 해결하도록 눈을 감아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일반노동자가 조반장에게 부탁을 하거나 문제를 호소하면 조반장이 한국인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해결점을 찾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조반장을 활용한 일반노동자에 대한 간접통제는 한국인 경영진 및 매니저와 베트남인 노동자 사이의 민족적, 계급적 갈등을 베트남 노동자 내부로 돌리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베트남 조반장은 한국인 매니저와 일반노동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무엇보다 일반노동자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력을 발휘해야 했다. 일반노동자에게 자신이 근본적으로는 같은 베트

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 매니저에게 능력 없는 조·반장으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노동자를 채근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 매니저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일반노동자를 강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노동자에게 좋은 조·반장과 나쁜 조·반장이 있기 마련이었다. 역설적인 것은 일반노동자에게 좋은 조·반장이 한국인 매니저에게는 나쁜 조·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한국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일반노동자를 강하게 통제하면서 한국인 매니저에게 비난이 옮겨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조·반장이면 반면 일반노동자에게는 한국인 매니저에게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고충을 이해하는 조·반장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연구자는 한국인 매니저, 조·반장, 일반노동자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노동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연구자는 노동과정에서 관찰되는 위계와 통제 양상에 주목하면서 SIL의 안정된 공장체제의 비결이 베트남 노동자의 내적 갈등과 적대감을 활용하는 외국인 경영진과 매니저의 전략에 숨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일반노동자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인 매니저를 욕하기 보다는 조·반장을 비난하면서 “베트남 사람이 더 문제다”라는 담론을 구사했다. 일부 일반노동자는 “한국인 매니저가 현장에서 조·반장이 어떤 짓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한국인이 직접 나서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구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일반노동자의 희망은 SIL이 안정된 공장체제를 유지하는 비결을 완전히 “간파”(penetration)

(Willis 1977)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었다.

연구자는 한국인 매니저와의 면담에서 일부는 효율성을 의식하면서 일부는 그저 관행처럼 이런 통제양상을 체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통제양상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다양했다. 하지만 “베트남 (일반노동자) 애들은 직접 뭐라 하면 안 된다”거나 “똑똑한 조반장을 잘 조져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한국인 매니저의 이런 경륜은 초기에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제도화한 결과로 보였다. 덕분에 SIL은 투득 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외부의 평가를 받곤 했다. 하지만 이 안정된 체제에는 희생이 따르고 있었다. 베트남인이 외국인 매니저에 대해서 가져야 할 민족적, 계급적 적대감이 왜곡되어 내부를 향했던 것이다.

## IX. 사회적 관계와 문화에서 안정된 공장체제의 비결 캐기

전통적으로 문화인류학자가 연구지에서 지도를 그리는 것 이외에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일은 ‘친족계보도’(genealogical chart)를 작성하는 것이다(줄리아 크레인 외 2003: 46-77). 이는 과거 문화인류학의 연구대상이었던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토대가 친족이었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자도 노동과정을 연구하면서 파악한 위계 및 통제양상과 연계된 베트남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상명세서를 분석했다. 신상명세서에는 나이, 고향, 입사년도는 물론이고 친인척, 추천인, 그리고 지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기 때문에 세대, 지연, 혈연 등으로 얽힌 사회적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했다.

연구자는 신상명세서를 분석하고 일종의 계보를 작성하면서 의문

점이 생기면 노동자를 따로 불러 면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를 놀라게 한 것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공장 내에 최소한 친인척 1-2명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형제, 자매, 오누이는 물론이고 삼촌이나 이모(또는 고모)와 조카 그리고 부모자식의 관계도 발견되었다. 구직할 당시의 추천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일종의 ‘의사친족관계’(fictive kinship)를 맺고 있었다. 실제 형이나 삼촌이 아니지만 서로 형님-아우나 삼촌-조카로 부르며 친족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신상명세서를 기초자료로 노동자 650여명의 사회적 관계를 추적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성이 다른 먼 친척이나 인척의 경우 관계를 감추기도 했고 실제 추천인과 형식적 추천인이 다른 경우도 많아 일일이 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당시만 해도 취직이 되면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천인에게 사례하는 것이 관행일 만큼 일자리가 귀했고, 이로 인하여 추천을 둘러싼 경쟁과 잡음이 끊이지 않자 회사에서 1인당 추천인을 1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친인척 관계와 추천인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완성해 놓고 보니 흥미롭기 그지없었다.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는 관계를 정돈하고 나니 회사에서 영향력이 있는 베트남 노동자일수록 연결되어 있는 동료도 많았다. 예를 들어, 노조위원장이면서 방적공장의 베트남 총책임자 역할을 하던 노동자는 무려 23명의 친인척 및 의사친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노조간부, 조반장, 통역관, 인사과 직원, 운전기사 등도 영향력에 비례하여 상당수 노동자와 연계되어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인 매니저와 친하고 이들과 일반노동자 사이의 중재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인사권을

취고 있는 한국인 매니저들과 친하고 중재자 역할을 잘 할수록 베트남 노동자 사이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인 매니저는 충성도와 중재능력에 비례해서 청탁을 들어주고 베트남인 중재자는 그 대가로 일반노동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셈이었다.

다른 하나는 일반노동자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인물 사이에 일종의 호혜(일종의 patron-client)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반노동자는 회사의 결정이나 노동과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 이를 자신과 연계된 중재자에게 토로할 수 있는 반면, 불만을 터뜨리고 싶어도 중재자와의 관계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이중적 위치에서 있게 되었다. 베트남 노동자 사이에 형성된 호혜관계가 일반노동자의 동의를 얻어내고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SIL이 안정된 공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베트남 노동자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서도 찾아낼 수 있었다.

신상명세서 분석을 끝낸 연구자는 마침내 문화인류학자가 금이 문헌 광택처럼 생각하는 일상생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일상을 관찰하는 일은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중대한 작업이다. 연구자는 SIL 공장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비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기 위해 연구대상자가 일상 속에서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으며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지 살펴보려고 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노동자가 일터와 삶터에서 벌이는 활동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체면 불구하고 쫓아다녔다. 경조사와 술자리는 기본이었다. 일과 후에 남성노동자끼리 벌이는 노름판에서 구경꾼 노릇도 하고 축구경기를 놓고 벌어지는 내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겹돈을 탄 여성노동자가 한턱낸다는 소식이 들리면 청일점으로 가라오케까지 따라가 놀림거리를 자칭하곤 했다.

이쯤에서 문화인류학자가 일상을 연구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인 매니저나 동료 노동자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가 개인적 경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노동과정에서의 위계나 통제 때문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결과 맞추기 내기를 하면서 다툼을 벌인 적이 있어 상대를 싫어할 수도 있다.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에밀 뒤르껼(Emil Durkeim 1997)이 주장한 것처럼, 사회과학적 연구는 이런 개인적 심리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할 수 있는 유형이나 법칙을 밝혀내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가 베트남 노동자의 일상을 참여관찰하면서 보고자 한 것도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공유된 문화였다.

연구대상 공장인 SIL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 실천되는 공유된 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의 계에 해당하는 ‘후이’(hui)였다. 후이는 노동조직과 함께 공장 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두 축이었다. SIL에는 수십 개의 후이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특히 여성) 노동자가 후이(이하 계)의 회원이었다. 많은 노동자가 여러 개의 계에 동시에 가입해 있었으며 동일한 노동조직에 속한 노동자는 대부분 같은 계의 회원이었다. 계가 이처럼 활발함에 따라 월급날이 되면 쟁돈을 거두기 위해서 한국인 매니저의 눈을 피해 공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계주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공장 내에서 운영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는 한국의 낙찰계였다. 자신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써 내어 가장 낮은 액수를 제시한 계원이 당회의 쟁돈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30명의 계원이 2주마다 5-10만동(3.3-6.6달러)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낙찰가가 거둘 수 있는 최대 액수인 150-300만동보다 적게 마련이므로 실제

내는 액수는 이보다 적다. 하지만 마지막에 깃돈을 가져가는 회원은 낙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대액수를 다 가져갈 수 있다. 목돈이 급한 회원은 빨리 낙찰을 받은 대신 자신이 받은 액수보다 더 많이 납입하는 반면 늦게 낙찰을 받을수록 이득이 많아지는 것이다.

낙찰계의 원리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는 손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자기 몫의 깃돈을 일찍 거둔 뒤에 다른 노동자가 타야 할 때 깃돈을 내지 못하는 사태를 일으키곤 했다. 그 결과 계가 깨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고리대금업자이다. 공장 내에는 여러 계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큰 계주가 많았다. 이들이 몇 백 퍼센트의 고리를 받고 급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대부를 해주었다. 큰 계주는 고리대금업으로 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고 상당한 액수의 돈도 벌 수 있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계주가 도망가거나 계가 파산하면서 사회문제를 자주 일으켰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계를 금지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계가 너무 성행해서 불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합법으로 인정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Leshkovich 2000). SIL의 경영진도 베트남 정부와 같은 처지였다. 계로 인하여 노동자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는데 갈등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사적인 조직을 금지시킬 명분이 없었다. 회사로서 취할 수 있는 조처는 깃돈을 받지 못했다고 월급을 차압해달라는 계주와 고리대금업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 밖에 없었다.

이처럼 공장에서 성행하던 계는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이중적인 기능을 하는 문화였다. 한편으로 계는 동일한 노동조직에 있는 노동자를 경제적 상호부조를 매개로 긴밀하게 엮어주고 다른 노동조직에 속한 동료와 친분을 만들어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사이에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을 조장했으며 고리대금이 관

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대감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아래에 소개할 한 사건은 공장 내의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면서 이런 적대감이 공장 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사회적 드라마’(social drama)(Turner 1974)이다.

어느 날 연구자의 방에 한국인 매니저 한 명이 들어와 워터-제트 공장에서 잠시 전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공장에서 오랫동안 통역으로 일해 온 50대 여성 노동자가 워터-제트 공장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한국인 매니저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연구자는 곧장 워터-제트 공장으로 향했다. 연구자가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고 노동자들만 상기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연구자는 싸움이 일어난 이유와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개인적인 호기심도 없진 않았지만 노동자의 내적 갈등과 적대감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별 의미 없는 해프닝인 듯했다. 워터-제트 사무실에 들러 만난 한국인 매니저에 따르면 둘 사이에 평소에 쌓인 감정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불과했다.

반전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다. 연구자는 출근하자마자 옆방에 근무하는 베트남인 여사무원으로부터 전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워터-제트에 일하는 두 명의 한국인 매니저 가운데 한명이 여성 통역관의 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으며 주말이면 집에 들러 잠을 자고 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한국인 매니저와 사무실 여직원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화가 난 여성 통역관이 한국인 매니저에게 직접 대들지는 못하고 사무실 여직원을 잡들이 했다는 것이다.

소문은 사실로 판명 났다. 하지만 연애 스캔들에 대한 책임여부를



놓고 공장 내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해석은 판이하게 달랐다. 한국인 매니저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 내에서 베트남 여직원과 사권 동족 매니저를 강하게 비난했다. 베트남 노동자의 구설수에 올라 한국인 매니저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사무실에서 한국인 매니저에게 “꼬리를 친” 여직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여성 통역은 “딸까지 바치고 배신당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반면 베트남 노동자는 여성 통역관을 가장 강하게 비난했다. “딸을 팔아” 외국인 매니저에게 잘 보이려고 한 파렴치한 어머니이자 수치스런 베트남인으로 낙인찍었다. 대조적으로 사무실 여직원과 한국인 매니저에 대해서는 처녀와 이혼남이 사귀는 것까지 비난할 수는 없다는 담론이 우세했다. 여성 통역관의 행동은 민족적 수치이지만 사무실 여직원의 행동은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라는 이중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다. 여성 통역관이 사무실 여직원의 집에까지 찾아가 망신을 주었다는 등의 루머가 퍼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해석은 정당성을 얻어갔다. 게다가 한국인 매니저가 주위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귀국하고 사무실 여직원도 출근하지 않게 되자 여성 통역관에 대한 베트남 노동자의 마녀사냥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연구자는 이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이 여성 통역관이 회사 내에서 한국인과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도 베트남 노동자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지 않는 중재자의 한 명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설상가상으로 이 여성 통역관은 공장 내의 가장 큰 계주이자 고리대금업자였다. 굴리는 자금규모가 커서 많은 노동자와 얽혀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껌돈이나 이자를 잘 받아내기로 유명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 노동자들은 이 여성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감정에 따라 통역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다고 믿었다. 이런 갈등을 인식하고 있던 연구자는 일상 속에서 형성된 여

성 통역관을 향한 노동자들의 적대감이 연애 스캔들을 계기로 표출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처럼 베트남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를 일상의 맥락에서 현지연구하면서 베트남 노동자 내부에서 친밀감과 적대감 혹은 동의와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베트남 노동자가 서로 친인척 혹은 의사친족 관계로 얽혀 적대감보다는 친밀감을 그리고 저항보다는 동의를 활용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경향이 SIL이 안정된 공장체제를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계 조직의 양면적 기능이 시사하고 있듯이 베트남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가 친밀감과 동의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계 활동의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고리대금을 향한 적대감도 엄연히 존재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갈등과 적대감이 자본과 한국인 경영진 및 매니저를 향하지 못하고 내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계급 (또는 민족)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적대적 정향이 계급 (또는 민족) 내부에서 해소되고 있는 점이 연구대상 공장체제를 안정시키는 또 다른 비결이었던 것이다.

## X. 나가는 말: 현지연구 마무리와 논문작성

연구자는 현지연구의 마지막 두 달을 그 동안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보냈다. 공장에 나가 현지연구노트와 연구보조원이 찾아온 보도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의문이 생겨나면 답을 찾기 위해 추가조사를 했다. 또한 연구목적에 맞게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현지연구에서

찾아낸 사실은 무엇이고, 이러한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이론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성찰하였다. “내가 무엇을 연구하기 위해 이제까지 달려왔는가?”, “현지연구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내가 던진 질문에 대답은 찾았는가?”, “이 대답에 숨어 있는 이론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시간을 되돌려 현지연구 직전으로 되돌아가 보니, 본 연구의 목적은 개혁개방정책 이후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모순에 대하여 베트남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연구자는 외국자본에 의해 자본주의 훈육을 받고 있는 베트남 산업노동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자신의 삶과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고, 저항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는 18개월 동안 현지연구를 실행하였다. 처음 경험해보는 타국에서의 장기현지연구는 험준한 산을 등정하는 것 못지않게 힘든 과정이었다. 언어를 습득하고 기후와 풍습에 적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와 마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인고(忍苦)의 시간이었다. 현지연구를 진행할 공장을 고르고 허가를 받느라 6개월을 소비한 뒤 한숨을 돌렸는가 싶으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한국인 매니저와 현지노동자가 연구자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온갖 경험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들과 라뽀를 형성해 놓으니 세부적인 연구내용을 정하고 조사방법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연구자는 이 고비를 넘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눈을 감고 현지연구과정을 복기하면서 문화인류학 이론과 방법론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찬찬히 떠올려보았다. 어느 순간 방법론 교재에서 읽은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인류학 이론은 달팽이처럼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류학적 현지연구는 특정 이론이 현지에 들

어맞는지를 적용해보는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현지에서 찾아낸 사실에 근거해서 이 이론을 수정하는 귀납적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수정된 이론은 현실에 연역적으로 적용되며 다시 귀납적으로 수정된다. 달팽이의 몸을 파고들며 아로새겨진 나선처럼 연역과 귀납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지연구는 의문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해답을 제시한다.

인류학적 현지연구의 이런 특성을 상기하면서 연구자는 연구내용을 정돈하고 조사할 세부항목을 정하기 위해서 처음 염두에 두었던 이론적 가정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연구자는 베트남 노동자가 외국자본에 대하여 때론 저항하고 때론 순응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몇 가지 이론적 질문을 던진바 있었다. 베트남 노동자의 저항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일까? 이 경우 개인의 판단은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한 결과인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저항을 해야 할지 순응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화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인의 성향이나 집단의 행동을 결정하는 문화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어떤 정치과정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이론적 가정을 되새겨보는 과정은 연구내용을 명료하게 만들어주었다. 또한 연구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누그러뜨려 주었다.

이후 연구자가 집중적으로 탐색한 항목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연구대상 공장이 위치해 있는 투득 지역의 20여년 역사를 추적하였다. 베트남 전쟁시기부터 개혁개방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현지연구 당시까지 이 지역의 노동자가 어떤 정치경제적 조건 아래서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추적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공장이 초기에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유지한 이유를 살피기 위해 과거 공장에서

일어난 일을 탐문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공장이 현지연구 당시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노동과정에서 찾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비결을 찾기 위해 베트남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연구내용을 하나하나 탐색하는 과정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간여행이기도 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는 과학여행이기도 했다. 또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그리고 구조와 개인의 관계를 성찰해보는 이론여행이기도 했다.

인류학적 현지연구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떠날 준비를 하다보면 그 동안 모아 놓은 기념품과 추억거리를 새삼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여행에서 얻은 성찰이 무엇인지를 되새김질 해보게 된다. 현지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구자는 그 동안 찾아낸 대답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대답이 이론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아야 했다.

베트남 노동자의 개혁개방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면서 연구자는 이들이 처음에는 자본주의의 논리와 훈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항하지만 점차 순응해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의할 점은 이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만족하거나, 저항하고 싶지만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체념하기 때문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베트남 노동자가 순응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사회적 관계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떤 정치과정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대상 공장 SIL은 연구자에게 이러한 이해를 가능케 한 공간이었다.

연구자는 SIL이 초기의 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게 된 비결을 한국인 경영진과 매니저들이 일상에서 베트남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를 활용하여 영리한 정치를 벌이는 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SIL의 한국인은 베트남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에 직접 간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인식 아래서 한국인은 회사 내에 중재자 집단을 형성하여 베트남인 일반노동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였다.

한국인 경영진과 매니저가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중재자 집단과 일반노동자 사이에 맺어진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규범 덕택이었다. 중재자 집단은 일반노동자에게 구직할 때 추천서를 써주거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도움을 줌으로써 이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와 문화는 공장 내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연구자는 노동자의 저항을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도 임금에 대한 불만은 노동자가 자본에 저항을 시도하는 주요원인이었다. 하지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낮은 공장에서는 오히려 노사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사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다.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임금의 만족도에 비례하진 않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구자는 다국적 공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경영진과 노동자의 문화적 차이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국적 공장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민족이 다른 노사가 서로의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비례하여 노사관계의 양상이 바뀌지는 않았다.

연구자는 SIL의 공장체제를 연구하면서 노동자의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적 혹은 사회문화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의 ‘저항의 정치학’(politics of resistance)은 노동자의 제반 요구만이 아니라 이를 협상하는 정치적 과정과 이것이 얼마나 제도화되고 체계화되

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처럼 현지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동안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구자의 생애 첫 장기 해외현지연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모순된 것인지를 느꼈다. 현지연구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몰려오던 좌절감은 홀연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무사히 등정을 마치고 돌아간다는 기쁨보다 아쉬움이 몰려왔다. 이제 막 현지연구의 맛과 의미를 알기 시작했는데 벌써 떠나야 하는 현실이 야속했다. 현지연구를 조그만 더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무리마저 끝내야 할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연구자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 한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언어, 음식, 습관이 다른 세상에 돌아와, 오토바이 대신에 지하철을 타고, 공장 대신 도서관으로 출근을 하여, 공장노동자 대신 책을 상대하는 일은 신선함 못지않게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현지연구에 대한 느낌과 기억이 생생할 때 박사논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문화충격에 호들갑을 떨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진짜 어려움은 박사논문 작성과정에서 겪었다. 먼저 현지연구를 하고 있는 동안 발간된 책을 읽고 새로운 시각, 사례, 이론을 소개하는 수업을 들어야 했다. 또한 현지연구 동안 지식이 부족하여 아쉬웠던 분야를 탐색하면서 상당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예를 들어, 젠더(gender)에 관한 여성학적 연구와 후기사회주의 국가의 노동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논문 집필을 착수하기 전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초조했다. 하지만 현지연구에서 접했던 현실을 새로운 민족지나 이론을 통하여 다시 조명해보는 일은 배움의 기쁨을 주었다.

논문작성은 현지연구와 마찬가지로 완벽함을 추구하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이다. 기대감을 낮추고 일정을 정해서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평생이 걸려도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위험을 감지하면서 연구자는 “박사논문은 운전면허를 따는 것에 불과하다”는 선배의 충고를 격언삼아 과감하게 집필에 들어갔다. 막상 집필을 시작하니 현지연구가 충실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현지연구를 하는 동안 귀찮아 지나치고 싶은 충동을 이기고 세세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분석해 놓은 것이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현지연구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회상할 기회를 갖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지연구결과를 연구논문으로 작성하는 작업에는 예상하지 못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구자는 현지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미리 분석한 뒤 이를 엮어서 논리적 틀을 짜고 나면 박사논문이 쉽게 끝날 것으로 기대했다. 글쓰기는 수사적 포장 작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과 분석이 만들어지고 덧붙여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관찰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르듯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과 글로 표현된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아마 독자가 연구자의 박사학위를 텍스트로 읽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의미와 해석이 생성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처럼 현지연구의 내용을 민족지로 기술하는 과정은 연구자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엄밀하게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 작가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세상을 해석하는 것에 가까웠다(Clifford 외 1986). 이런 경험을 통하여 연구자는 문화인류학이 ‘가장 인문학에 가까운 사회과학’이며 ‘가장 사회과학에 가까운 인문학’이라는 어느 학자의 주장에 새삼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거쳐 마침내 장기현지연구를 토대로 한



민족지가 탄생하게 되었다.

**주제어:** 인류학적 현지연구, 박사논문 작성, 도이머이, 베트남 공장노동자, 다국적 공장, 공장 레짐

<참고문헌>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 윤택림·함한희. 2006.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 줄리아 크레인, 마이클 앙그로시노, 한경구, 김성례 공역. 2003.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일조각.
- 채수홍. 2003a. “호치민시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6(2):143-182.
- \_\_\_\_\_. 2003b. “여성, 노동자, 여성노동자: 여성주의 민족지의 젠더와 계급.” 『여성연구』 65(2):83-116.
- Abu-Lughod, Lila. 1990. “Can There Be a Feminist Ethnography?.” *Feminist Ethnography* 5(1): 7-27.
- Anderson, Benedict. 1992. “The New World Disorder.” *New Left Review* 193: 3-13.
- Bailey, Frederick George. 1969. *Strategems and Spoils: A Social Anthropology of Politics*. New York: Schocken Books.
- Burawoy, Michael. 1979. *Manufacturing Cons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Verso.
- Burawoy, Michael and Lukacs, Janos. 1992. *The Radiant Past:*

- Ideology and Reality in Hungary's Road to Capit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e, Suhong. 2003. "Spinning Work and Weaving Life: The Politics of Production in a Capitalistic Multinational Textile Factory in Vietnam." Ph. D. Dissertation.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_\_\_\_\_. 2004. "Contemporary Ho Chi Minh City in Numerous Contradictions: Reform Policy, Foreign Capital and the Working Class." In Jane Schneider and Ida Susser (eds.), *Wounded Cities*, pp. 227-248. New York: Berg.
- Clifford, James and George E. Marcus. 1986. *Writing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uiker, W.J. 1995. *Vietnam: Revolution in Transition*. Boulder: West-view Press.
- Durkeim, Emil. 1997(1897). *Suicide*.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Gouldner, Alvin W. 1954. *Patterns of Industrial Bureaucracy*.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Fford, A and Vylder, S. 1996.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Boulder CO: Westview Press.
- Hann, C and E. Dunn (eds.). 1996. *Surviving Post Socialism: Local Strategies and Regional Responses i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London: Routledge.
- Humphrey, Caroline. 1998. *Marx Went Away-But Karl Stayed Behind*. Ann Arbor: University Michigan Press.
- Jovitt, Ken. 1992. *New World Disorder: The Lennist Extinc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shkovich, Anne Marie. 2000. "Tight Woven Thread: Gender,

- Kinship and 'Secret Agency' among Cloth and Clothing Traders in Ho Chi Minh City's Ben Thanh Market.”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Marr, D.G. and White, C.P. E (eds.). *Dilemmas in Socialist Vietnam*. Ithaca: Cornell University Southeast Asia Program.
- Paige, Jeffery. 1975. *Agrarian Revolution: Social Movements and Export Agriculture in the Underdevelopment World*. New York: Free Press.
- Popkin, Samuel. 1979. *The Rational Peasa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bles, B. 1995. *Money Sings: The Changing Politics of Urban Space in Post-Soviet Yaroslavi*. Washington: Woodrow Wilson Press.
- Scott, James,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Subsistence and Rebellion in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urner, Victor. 1974. *Dramas, Fields,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dery, Katherine. 1991. *National Ideology under Socialism: Identity and Cultural Politics in Ceausescu's Romani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illis, Paul. 1977. *Learning to Labor*. Aldesho: Grover.
- Wolf, Eric. 1969. *Peasants*. Englewood: Prentice-Hall Inc.

(2013. 05. 30. 투고; 2013. 06. 13. 심사; 2013. 06. 14. 게재확정)

<Abstract>

## Reflection on the Fieldwork of Vietnamese Factory Workers' Resistance

CHAE Suho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seeks to reflexively recollect the experience of anthropological fieldwork that I got through for the writing of doctoral dissertation. The main purpose of my fieldwork at that time was to understand how the Vietnamese were dealing with their changing situations led by the reform policy called Doi Moi. More specifically, I attempted to interpret Vietnamese factory workers' responses and resistances to the capitalist transformation in their working and living place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rocesses of implementing my fieldwork to fulfill the research purpose as a doctoral student majored in anthropology between 1998 and 2000. The fieldwork processes already began when I planned fieldwork, conducted preliminary short term fieldwork in Vietnam, and wrote a research proposal for research funds based on several hypotheses. Then, I went to the southern Vietnam and searched for reconstructing both the regional history and the history of the factory that I mainly conducted fieldwork. Afterwards, focusing on the labor

processes and the social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e multinational factory, I attempted, in earnest, to find the secret of the political stability of the factory regime in which I lived with the workers for almost a year.

In retrospect, the whole processes were a way of finding the gap between the theoretical hypotheses and empirical data acquired from the fieldwork. In other words, I realized that anthropological fieldwork was essentially a dialectical and repetitive process of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While describing the whole fieldwork experiences, I hope that this article can provide a reflexive guide for the anthropological students planning a fieldwork in the future.

**Keywords:** Anthropological Fieldwork, Writing Doctoral Dissertation, Doi Moi, Vietnamese factory worker, Multinational factory, Factory Regime

